

예술가



유형열 한얼국악 예술단 대표

전통의 깊은 울림을 현대 무대 위로 이어오고 있는 대북 연주 예술가로 강한 에너지와 섬세한 리듬 감각으로 풍물과 국악 공연, 축제 무대 등에서 한국 전통 타악의 미학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관객과 교감하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원길 시인

지레예술촌의 총장이자 시인으로 오랜 시간 지역 예술 생태를 지켜온 문화인입니다. 1971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후 2007년 옥관문화훈장, 2017년 대한민국 한류대상 한옥 부문 전통문화대상을 수상하며 예술적 깊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가는 국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입니다.

도시숲 예술치유



다시 피어나는 숲, 연결되는 우리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예술로 자연의 회복을 돕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희망을 두드리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2025. 11. 23.

경북 안동 지레예술촌

도시숲 예술치유



‘다시 피어나는 숲, 연결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도시숲 예술치유’는 도시숲에서 예술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확장하며 일상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피어나는 숲, 연결되는 우리>는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예술로 자연의 회복을 돕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희망을 두드리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산불로 상처 입은 공간을 살펴보고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며 자연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하세요.

일 시 : 2025. 11. 23. 일 14:00 ~ 16:00

장 소 : 경북 안동 지례예술촌

참여인원 : 지역주민, 소방관·가족, 관심있는 일반인 등

프로그램 일정

도입	14:00	지례예술촌 주차장	참가자 도착 및 인사
기억의 자리	14:00 ~ 14:20	지촌종택/행랑채/별당터 *전소된 공간	지례예술촌 공간 소개
숨의 자리	14:20 ~ 15:00	강당 및 사당 *화마를 피한 공간	계절과 토양을 고려하여 지례예술촌의 회복을 위한 씨드 볼 제작
울림의 자리	15:00 ~ 15:25	야외 무대 운동장 *화재 피해가 있었던 공간	시 낭독과 대북 퍼포먼스
회복의 자리	15:25 ~ 15:50	산책로 → 능선 *화재 피해가 심한 숲	희망의 씨드 볼 던지기
약속의 자리	15:50 ~ 16:00	능선 하단 마당	소감 나누기 및 마무리

*우천 등 기상 환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숲과의 첫 만남

도입

버스를 타고 지례예술촌으로 향하는 길,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검게 그을린 나무들과 공터를 지나며 ‘불의 흔적’과 마주합니다.

회복의 필요성 인식

기억의 자리

버스에서 내려 지촌종택과 행랑채, 별당터 등 불에 탄 공간에 들어서면 과거의 사진 속 풍경과 눈앞의 찻빛 현실이 겹쳐 보입니다. 지례예술촌 김수형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상실’과 ‘기억’의 감정을 느낍니다.

내면의 전환 시작

숨의 자리

피해를 면한 정곡강당과 사당의 잔디마당으로 올라서 햇살을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경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손으로 흙과 퇴비, 씨앗을 섞으며 씨드 볼을 빚으며 자생할 생명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감정의 해소와 공감

울림의 자리

임하호가 보이는 야외무대에 도착하여 김원길 시인의 시 낭송과 유형열 전통예술가의 북의 울림을 경험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북을 두드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소리는 ‘불의 기억’을 정화의 진동으로 바꾸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희망의 구체화

회복의 자리

좁은 산책로를 따라 능선에 오르면 바람을 통해 흄냄새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자연의 생명이 멈춘 능선 앞에 서서 모두가 함께 재생의 생명인 씨드 볼을 던지는 순간을 경험 합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의 회복을 희망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회복의 힘

약속의 자리

씨드 볼이 땅에 닿은 순간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례예술촌의 회복과 사람들의 마음이 슬픔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